



허달재 95X133cm

매화는 춥더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매서운 바람을 뚫고 봄 소식을 전해주는 매화.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즉, 매화는 춥더라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대부분의 꽃은 따뜻한 봄에 피지만, 매화는 추운 날씨에 피고 향기가 고고하기 때문에 격조 높은 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연유로 매화는 옛날부터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굳게 지키는 선비에 비유되곤 했다.

그런데 이 매화, 어디서 온 것일까? 여기 슬픈 전설이 하나 있다. 먼 옛날, 중국 간둥 지방에 용래라는 청년이 있었다. 용래는 꽃처럼 예쁜 아가씨를 만나 약혼을 했다. 둘의 사랑이 무르익기도 전, 약혼 후 3일 만에 용래의 약혼녀가 몹쓸병에 걸려 죽어버렸다. 용래는 그녀의 무덤에서 울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용래의 슬픔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약혼녀를 향한 용래의 사랑과 그리움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용래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나무 한 그루가 돌아났다. 훗날 그 나무를 매화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는 전설일 뿐이다.

매화의 정신을 표현하다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기도 전부터 화폭의 매화는 그 고고한 자태를 자랑한다. 직현(直軒) 허달재(1952~)의 작품 속에서다. 일찍이 작가는 흥차 물을 들여 고풍스러운 느낌을 자아낸 한지 위에 흐드러지게 핀 붉은 매화를 그려 넣기도 하고 자잘한 금박을 뿌려 한층 완성도를 높인 '허달재식 매화도'를 완성시켰다.

작가는 남종화의 거목인 의재(毅齋) 허백련(1981~1977)의 장손자로 남도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작가는 인품으로 그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 사물의 형태보다 내용과 정신을 표현했다.

'허달재식 매화도'는 2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전시되는 '直軒 허달재展'에서 만나볼 수 있다. MEDYcheck

